

周學海의 三陰三陽 分野說에 관한 고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張祐彰^{1,*}

A Study of Juhakhae(周學海)'s Three Eum and Three Yang[三陰三陽] Field Theory

Jang Woo-chang^{1,*}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ree Eum and Three Yang[三陰三陽] is a way of studying the changing of nature from a Eum(陰) and Yang(陽) point of view. Juhakhae(周學海) divides this into two dimensions. The first is the concept of dividing the exterior part of the body excluding the organ into 6 divisions as Eumyang(陰陽) of front and rear characteristic. The second is the concept of dividing the systematic bio-activity of the central organ into another 6 dimensions. The former concept is illustrated in the body as a certain meridian controlling a certain field of the body, while the latter is presented as a certain organ performing an activity of Gi(氣).

Three Eum and Three Yang[三陰三陽] is not based on fixed substances, but it is a thought process model of observing the structural-functional changes of the body in disease state. Therefore, by understanding Three Eum and Three Yang[三陰三陽] of field and activity of Gi(氣) respectively and comprehensively putting these into practice, we will be able to approach the essence of the disease state in a more precise manner.

Key Words : Three Eum and Three Yang[三陰三陽], field, activity of Gi(氣).

I. 序 論

周學海(1856~1906)는 字가 證之이며 安徽 健德사람이다. 실증적이고 고증적인 清代 학풍의 영향 하에 많은 의서들을 校勘, 評注하였다. 저술은 현재 『周學

海醫學全書』에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讀醫隨筆』은 세간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 책 모두의 「氣血精神論」, 「升降出入論」, 「乘制生化論」, 「虛實補瀉論」을 보면 그가 고전의 엄밀한 해석과 의학적 실천을 바탕으로 의학의 제 이론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기획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의 脈學 관련 저서들과 『傷寒補例』를 보면 脈學과 傷寒溫病學 方面에서 독특한 성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의 三陰三陽의 의미에 대한 해명은 『傷寒

* 교신저자 : 張祐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전화 : 02)961-0735. E-mail : jangchang@khu.ac.kr

論』六經의 실질과 관련된 유구한 논쟁의 결정판으로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黃龍祥이 “周氏의 三陰三陽 名義에 대한 3篇의 논의는 기간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¹⁾라고 평할 정도로 經絡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학계에는 박찬국의 조명 이후로 三陰三陽 관련 논의가 상당 정도 진척되어 임진석의 경우는 『陰陽離合論』의 해석에 있어 사실상 周學海와 동일한 결론을 표명하 바 있다. 周學海의 三陰三陽 分野說은 部位說이나 氣化說이 유행하는 과정에서 六經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본뜻이 왜곡되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六經의 실질에 관한 논의에 해당한다. 특히 三陰三陽의 分野와 衛氣, 受病 등의 관련을 해명한 부분은 經絡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참고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먼저 주학해의 삼음삼양 분야설이 나오게 된 배경을 탐색하고 이어서 『讀醫隨筆』, 『傷寒補例』, 『脈義簡摩』 등에 표명된 내용을 근거로 그 구체적 함의와 학술적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II. 本 論

1. 제출 배경

一氣가 陰陽으로 분화한 이후 一陰一陽의 消長을 각기 삼단계로 구체화한 三陰三陽은 특히 인체의 陰陽變化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三陰三陽은 『內經』에서 소개된 이래 經絡, 診斷, 運氣 등 다방면에서 운용되며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靈樞』의 「本輸」, 「經脈」으로 대표되는 초기 經絡學說의 입안자들은 三陰三陽이란 이론틀로 기간의 임상적 경험을 체계화함으로써 經絡學說의 기초를 정초하였다. 경락학설의 거둔 성공은 方藥의 오랜 경

험을 체계화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이 보여주는 六經證治體系는 三陰三陽 이론이 질병의 진단 뿐 아니라 方藥의 활용을 아우르는 일정한 준거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임상의학의 발전에 크나큰 활력을 제공하였다.

『傷寒雜病論』의 六經이 『內經』의 經絡學說에서 기원한다는 사실은 적어도 『傷寒論』을 편성한 晋代의 王叔和에 있어서도 成無己, 朱肱을 대표로하는 宋代의 저명한 주석가들에 있어 자명한 사실이었다. 천년 이상을 지속되어 온 六經의 실질에 대한 연구는 明代에 이르러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첫째는 方有執을 효시로 六經을 인신을 구획하는 부위로 보는 이른바 部位說의 등장이며 둘째는 陶華를 효시로 六經을 六氣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標本氣化學說의 등장이다. 두 관점은 모두 『傷寒論』의 六經을 外感 뿐 아니라 인신 전체의 모든 질병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辨證體系로 입안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어, 六經 해석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반면에 六經의 의미에 대한 외연이 지나치게 확장됨으로 인하여 그렇다면 과연 三陰三陽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周學海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六經과 六氣를 동일시하는 주장이 공간적 分位로서의 六經과, 五藏의 本氣가 經絡을 통해 나타나는 氣化로서의 六氣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주학해의 주된 비판 대상인 標本氣化學說의 역사적 맥락을 잠시 짚어보겠다. 明代의 陶華는 六經의 본은 六氣로서 標本中氣의 전화 규율을 따라 六經의 經氣가 氣化한다는 이른바 氣化標本學說을 제출하여 六經의 病機의 특징을 설명하는 한편 증후에 대한 분석을 통해 六經의 임상적인 특징을 밝혔다. 이 학설은 清代에 들어 크게 유행하였는데 張志聰은 『傷寒論』의 六經이 經氣 즉 六經之氣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天의 六氣는 三陰三陽으로 나뉘고 이 天의 六氣가 인체의 三陰三陽의 六經之氣와 서로 感應한다고 보았으며, 外感病은 六淫之氣와 인체의 六經之氣가 氣類相感에 의해 발병한

1) 鄧良月 主編, 中國鍼灸經絡通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4. p.181.

다고 보았다. 이처럼 五運六氣, 標本中の 개념을 통해 六經의 실질을 이해하는 방법은 黃元御, 陳修園, 唐宗海 등 清代의 諸家에 수용되어 크게 유행하였다.²⁾

周學海는 氣化標本學說의 주된 명제인 六經이 곧 六氣라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黃元御가 말하기를, “小腸이 太陽이 속하는 것은 火가 水로 변하기 때문이요 胃가 陽明에 속하는 것은 濕이 燥로 변하기 때문이요 腎이 少陰에 속하는 것은 寒이 熱로 변하기 때문이요 肺가 太陰에 속하는 것은 燥가 濕으로 변하기 때문이니, 少陽厥陰은 木火가 한 가지로 변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六氣를 六經과 강습해서는 곤란하다.³⁾

周學海가 비판한 것은 「運氣篇」에 보이는 三陰三陽 標本中氣 학설 자체가 아니라 이를 六經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논리이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원리적으로 다른 陰陽과 五行을 억지로 牽強附會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2. 三陰三陽과 經絡臟腑

1) 陰陽五行과 經絡臟腑

六經과 六氣를 동일시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陰陽과 五行의 관련, 經絡과 臟腑의 관련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다.

氣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五行의 내재적, 주관적 원리와 陰陽의 외현적, 객관적 변화를 따르며 끊임없이 生長收藏한다. 무한의 우주에서 극미의 원자 차원에 이르기까지, 또 한 사물 내에서도 저급한 세포 수준에서 고급한 장부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은 陰陽五行의 변화를 따르며 생을 영위한다.

五臟은 五行의 변화를 주관하며, 陰陽의 변화는 經絡을 통해 나타나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

고 양자가 원리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五臟은 하나의 주체로서 의지를 가지고 외부의 자극에 적응하여 변화한다. 즉 오장은 그 안에 五神을 藏하고 외부 즉 天과 地에서 六氣와 五味를 받아들여 五行 운동을 하면 오장에서는 五運이 생기고 六腑에서는 六氣가 생겨 經絡에서 三陰三陽의 변화가 발현된다.⁴⁾ 박찬국은 六經과 六氣 사이에 별다른 관련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六氣와 三陰三陽은 『內經』에서 標本の 관계로 파악하고 있어 둘의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별 관계가 없다. 단지 五行과 三陰三陽을 함께 설명하려다 보니 六氣라는 개념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五行은 萬物이 존재할 수 있는 이치로서 만물이 생성변화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그 五行 자체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三陰三陽은 변화현상을 가지고 논한 것이므로 어떠한 사물이건 그 존재가 있다면 三陰三陽의 변화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 후세에 五行과 陰陽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지 않고 五行에 陰陽 개념을 加入시켜 木火를 陽으로 金木을 陰으로 보고 있고, 陰陽에 五行을 대비시키고 있으므로 달리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五行을 단순한 사물의 내재적인 변화원리로 보고 陰陽을 외재적인 사물의 변화현상으로 본다면 五行과 陰陽의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五臟과 經絡의 운동을 氣化의 관점에서 관찰하면 臟腑와 經絡 모두 升降浮沈의 변화를 겪으나 臟腑는 內에 자리하여 升降이 主를 이루고 經絡은 外에 자리하여 出入이 主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內經』에서는 이를 “根于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根于外者, 命曰氣立, 氣止則化絕.”⁵⁾라고 하였다. ‘中’은 元氣가 나오는 虛無의 中으로서 오장이 精神을 藏하여 주체적으로 승강운동을 위주로 함을 말하며, ‘外’는 人氣가 활동하는 지엽으로서 經絡이 외계와 교류하며 출입운동을 위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적인 분포로 보아도 장부가 수직으로 발달한 데 비하여 경락이 체표를 두르며 평면적으로 발달해 있는 점 역시 승강

2) 은석민. 傷寒溫病學史略. 대전. 주민. 2007. pp.160-161.

3)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5. “黃坤載曰: 小腸屬太陽者, 火從水化也; 胃屬陽明者, 濕從燥化也; 腎屬少陰者, 寒從熱化也; 肺屬太陰者, 燥從濕化也; 少陽厥陰, 木火同化也. 是以六氣強合六經者謬矣.”

4) 박찬국. 陰陽과 五行의 관계(1). 대한한의학회지. 1994. 8. p.24.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57.

과 출입이라는 기화의 양대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經絡의 陰陽消長과 臟腑의 오행운동을 동일한 수준에서 논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三陰三陽’은 어떤 원리로 도출되는가?

2) 象의 원리

周學海는 天地의 四象에서 도출되었다고 말한다.

『易』에 이르기를 “聖人有以見天下之賾，而擬諸其形容，象其物宜，是故謂之象。”이라 하였으니 지극하다 말 씀이어.⁶⁾

‘天下之賾’은 天下 萬物을 생성변화하게 하는 심오한 원리를 말하므로 ‘見天下之賾’은 天地萬物을 생성변화의 원리적 차원에서 통찰함을 뜻한다. ‘擬’는 특정 사물의 생성변화의 원리를 추연함을 말한다. ‘形’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容’은 속에 들어 있는 것이므로 각기 형이하의 器와 형이상 道를 말한다. 그러므로 ‘擬諸其形容’은 천지만물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개개 사물의 형이상과 형이하를 아우르는 생성변화의 원리를 추연함을 말한다. ‘象其物宜’에서 ‘物’이라 하지 않고 ‘物宜’라고 한 것 역시 사물을 원리적인 차원에서 표상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象’이란 사물을 원리적인 차원으로 소급하여 陰陽의 표상체계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

모든 對待의 상을 띄는 사물은 陰陽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음양은 하나의 표상체계로서 형식상의 명칭일 뿐이며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성인이 天地萬象의 근본을 통찰하시되 陰陽으로 하지 않음이 없으셨다. 예컨대 高下의 升降浮沈과 前後의 向背表裏와 往來順逆과 清濁寒熱과 牝牡雌雄이 그것이다. 모든 對待하는 象을 띄는 것들은 모두 陰陽의 명칭으로 명명할 수 있으니 經脈을 分列함에만

그치겠는가. 그러므로 心肺는 陽이고 肝腎은 陰이며 脾胃六腑는 至陰인 것 역시 陽清陰濁의 一端일 뿐이다. 淸한 것은 靜한 성질이 강하여 주로 속에 居하고 濁한 것은 動하는 성질이 강하여 주로 表에 거하므로 또한 陽濁陰淸이라는 말도 있다. …萬象이 一義에 통할 수 있으니 體의 음양이 있고 性의 음양이 있고 氣의 음양이 있고 象의 음양이 있고 數의 음양이 있고 部位의 음양이 있고 功用的 음양이 있고 角立의 음양이 있고 相生의 음양이 있고 交變錯雜의 음양이 있다. 때문에 말하기를 “陰陽者，數之可十，推之可百，數之可千，推之可萬，萬之大不可勝數，然其要一也.”라고 하였다.⁸⁾

『內經』에서 三陰三陽을 말할 때 경락을 말하느냐 장부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기준 즉 象을 기준으로 보는 방법과 氣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 象은 方位를 보아 결정하고 氣는 氣化를 보아 결정한다. 方位의 三陰三陽은 六經을 말하고 氣化의 三陰三陽은 六氣를 말한다.⁹⁾ 그러므로 三陰三陽은 六經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몸껍질(軀殼)의 表裏前後를 구체화하는 개념이며, 六氣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臟腑 本氣의 剛柔淸濁을 표상하는 개념이다. 分野는 陰陽消長이 외현하는 것이므로 三陰三陽의 형식이 일정하지만 氣化는 내재적인 오행의 원리를 象을 보아 추론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형식이 가능하다. 黃龍祥은 『內經』에서 경락, 臟腑와 三陰三陽의 대응형식이 일정치 않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內經』의 三陰三陽은 經脈만을 지칭하지 않고 臟腑도 지칭한다. 그

6)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8. “『易』曰聖人有以見天下之賾，而擬諸其形容，象其物宜，是故謂之象，至哉言乎!”
7) 김만산. 易學上 용어의 개념정의에 관한 연구(1). 동양철학 연구. 1997. 제17집. pp.250-254.를 참조.

8)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8. “聖人通于天地萬象之本，無不可以陰陽也者。如高下之升降浮沈也，前後之向背表裏也，往來之順逆也，淸濁寒熱也，牝牡雌雄也。凡屬對待之象，皆可命以陰陽之名，豈特分經而已哉? 則心肺爲陽，肝腎爲陰，脾胃六腑爲至陰，亦陽淸陰濁之一端已。淸者多靜而居裏，濁者多動而居表，故又有陽濁陰淸之說。…萬象可通于一義，而不能拘于一義者也。有體之陰陽，有性之陰陽，有氣之陰陽，有象之陰陽，有數之陰陽，有部位之陰陽，有功用之陰陽，有角立之陰陽，有相生之陰陽，有交變錯雜之陰陽。故曰陰陽者，數之可十，推之可百，數之可千，推之可萬，萬之大不可勝數，然其要一也。其知要者，一言而終，不知其要，流散無窮。”
9)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95. “蓋嘗綜論經義，有方位之三陰三陽，有氣化之三陰三陽，此其綱領也，而大旨不外于氣與象之義。”

리고 五臟의 三陰三陽 규정은 經脈과 완전하게 상응하지 않는다. 예컨대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陽中之少陰肺也; 陽中之太陰腎也.”¹⁰⁾라 하였으나 『素問·金匱真言論』과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肺者, 陽中之太陰; 腎者, 陰中之少陰.”¹¹⁾이라 하였다. 그리고 『素問·四時刺逆從論』에서는 “少陰-肺, 太陰-脾, 陽明-心, 太陽-腎, 少陽-肝”¹²⁾으로 보고 있다. 經脈學說과 藏象學說 간의 결합이 다양한 것은 형식상에서 양자 간에 상당한 수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표현할 뿐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양자가 원래 독립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¹³⁾

3. 육경의 실질

1) 표리전후의 분야

三陰三陽을 말할 때 分野와 氣化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경락 외부의 공간적 분포(즉 分野)와 경락으로 드러나는 氣血의 변화(즉 氣化)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三陽經의 氣血은 三陰으로도 흐르고 三陰經의 氣血은 三陽으로도 흐르므로 表裏의 部位를 말하는 三陰三陽을 氣血의 本性을 뜻하는 三陰三陽과 혼동하면 안 된다. 氣血의 음양은 마땅히 각각 해당 장부의 本體에서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分經의 음양과는 원래 무관하다.¹⁴⁾

‘分經의 음양’은 「陰陽이합론」에 상세하게 표명되어 있다. 周學海에 의하면 「陰陽離合論」에 보이는 部

位의 三陰三陽에서 ‘陰陽’은 ‘表裏의 雅名’이고 ‘太少厥明’은 ‘前後兩側의 雅名’에 다름 아니다.¹⁵⁾ ‘雅名’이라 한 것은 이때의 三陰三陽이 속성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부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함을 지적한 것이다.

陽明(前曰陽明): 陽은 表를 말하고 明은 盛을 말한다. 耳目의 精과 手足의 用이 모두 前部로 모이므로 廣明이라 한다.

太陰(其裏太陰): 등은 陽이고 배는 陰이다. 배의 裏에 자리하므로 至陰이라 한다.

太陽(後曰太陽): 太는 극단(至)을 뜻하고 陽은 表를 말한다. 등의 表部에 자리하여 耳目手足이 미치지 못하며 人身에서 가장 먼 곳이므로 太陽이라 하였다. 太는 멀다는 뜻이다.

少陰(其裏少陰): 少는 작다(小)는 뜻이다. 등의 裏에 자리하여 비교적 前部에 가까우므로 少陰이라 한다.

少陽(兩側曰少陽): 양 측면으로 떨어져 자리하며 部位가 좁기 때문에 少陽이라 한다.

厥陰(其裏厥陰): 厥은 거스른다(逆)는 뜻이다. 前部와 後部가 교차되는 部位로서 前後의 두 氣가 서로 맞닿기 때문에 厥陰이라고 한다.¹⁶⁾

원문에서는 太陽과 少陰의 위치를 말할 때 上下라 하였고, 陽明과 太陰의 위치를 말할 때 前後라 하였고, 厥陰과 少陽의 위치를 말할 때 表裏하 하였고, 太陰을 ‘太’라 한 것은 陽氣가 本에서 떨어져 후면으로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이며, 太陰 역시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13.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0. pp.36-37.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29.

13) 鄧良月 主編. 中國鍼灸經絡通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4. pp.180-181.

14)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8. “三陽經之氣血, 亦運行于三陰; 三陰經之氣血, 亦運行于三陽, 不得以表裏分經之陰陽, 爲氣血本性之陰陽也. 氣血之陰陽, 當各從其臟腑之本體求之, 與分經之陰陽, 兩不相涉者也.”

15)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8. “是故陰陽者, 表裏之雅名. 太少厥明者, 前後兩側之雅名耳.”

16)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207-208. “前曰廣明者, 陽者表也, 明者盛也, 耳目之精, 手足之用, 皆聚于前, 故曰陽明. 其裏太陰, 人身背爲陽, 腹爲陰, 居腹之裏, 故曰至陰. 後曰太陽者, 太者至也, 陽者表也, 居背之表, 而又爲耳目手足之所不及, 在人身爲至遠, 故曰太陽, 遠之也. 其裏少陰, 少者小也, 居背之裏, 稍近于前, 故曰少陰. 兩側曰少陽者, 分居兩側, 部位狹隘, 故曰少陽. 其裏厥陰, 厥者逆也, 前後之交, 兩氣相觸故也.”

陰氣가 크게 벌어져 복부의 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太’라 하였다. 少陽은 陽氣가 전면의 陽明과 후면의 太陽에 밀려 측면에 좁게 자리하기 때문에 작다는 뜻으로 ‘少’라 하였으며, 少陰은 太陽의 이면에서 전면의 太陰에 밀려 陰氣가 작기 때문에 少陰이라 하였다. 陽明은 陽氣가 전면으로 크게 자리났기 때문에 盛大하다는 뜻으로 ‘廣明’이라 하였으며, 厥陰은 전후가 교차되는 부위로 陰氣와 陽氣가 서로 맞닿기 때문에 ‘逆’의 뜻으로 ‘厥’이라 하였다.¹⁷⁾

2) 分野와 衛氣

『陰陽離合論』을 근거로 三陰三陽을 人身을 구역화한 개념으로 보는 관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사실상 새로운 것이 없다. 周學海 分野說의 특징은 柯琴 類의 分部說에서 三陰三陽을 人身 전체를 구역화한 개념으로 보는 데 비해 장부를 제외한 몸껍질(軀殼)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본 점이다.¹⁸⁾

그렇다면 分野와 經絡과의 관련은 어떠한가? 周學海는 먼저 六經의 ‘經’이 ‘經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을 지적한다.

‘經’은 分野를 말하니 孟子가 말한 ‘境界’와 같은 뜻으로 人身에서는 ‘部位’라 한다. 그러므로 ‘經’은 고정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명명 형식일 뿐이다. 部位가 정해지면 太陽과 少陰의 부위를 지나는 筋과 脈은 太陽之筋, 太陽之脈 그리고 少陰之筋, 少陰之脈이라 명명한다. …그러므로 『靈樞』의 「經脈」과 「經筋」 두 편 모두 ‘經’이란 글자를 머리에 얹었다. 筋과 脈이 모두 일정한 分野로 나뉘어 흐르기 때문이지 筋과 脈 이외에 별도로 ‘經’이란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큰 것을 ‘經’이라 하고 작은 것을 ‘絡’이라 하는 것은 脈 가운데 큰 것이 해당 부위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유독 ‘經’이라 명명한 것일 뿐이지 經과 絡이 서로 대치하여 완전히 별개의 것이란 뜻이 아니다.¹⁹⁾

周學海에 따르면 ‘經’이란 말은 三陰三陽각각의 分野를 흐르는 經脈과 絡脈, 筋과 肌肉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가 된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의 ‘經’은 다시 脈管을 뜻하는 ‘經絡’과 ‘分野’로 구별된다. 經絡이 營氣의 도로라면 分野는 衛氣의 도로이다. 양자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衛氣와 營氣의 속성상의 차이에 기인한다.

衛氣와 營氣는 발원하는 근본이 다르고 유행하는 경로가 다르므로 서로 범하면 안 된다. 常道를 잃으면 病變이 발생한다.²⁰⁾

衛氣는 “命門에 근본하여 三焦로 나와서 肌肉, 筋骨, 皮膚를 데우며, 剽悍滑疾하여 구속됨이 없는 기이다.”²¹⁾ 衛氣가 命門에서 나와 三焦에 達한다고 한

17) 임진석 역시 『陰陽離合論』에서 太陽, 陽明, 少陽을 각각 少陰之上, 太陰之前, 厥陰之表라 하여 위치 개념을 각각 上, 前, 表로 나타냈지만 사실은 숫자나 표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周學海와 동일한 관점을 표명하고 있다. 또 三陰三陽의 체표 분포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三陰을 보았을 때 太陰이 가장 크고 少陰이 그 다음이고 厥陰은 음이 끊어질 만큼 영역이 작으며, 三陽의 경우는 太陽과 陽明의 크기를 구별하기 어렵지만 『熱論』에서 巨陽이라 한 것을 참조하면 太陽이 다소 클 것이고 少陽은 제일 작다고 보았다. 또한 『陰陽離合論』의 前後表裏兩側 개념은 어디까지나 몸통에 국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四肢의 經脈 분포는 五輸穴이 向心性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體間에서 表裏로 간주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임진석,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闔樞.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8. 11(2). pp.19-20.) 족부 경맥 특히 足厥陰經과 足太陰經의 위치가 발 부위에서 뒤바뀐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手足 모두 『陰陽離合論』의 설명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陰陽離合論』을 굳이 체간에만 국한시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18) 柯琴은 『傷寒論翼』에서 육경을 인신의 內外上下表裏 전체를 여섯으로 구역화한 개념으로 六經地面說을 제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張祐彰, 柯琴의 醫學理論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pp.194-198.을 참조할 것.

19)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7. “經也者, 分野之謂也, 有孟子所謂經界, 在人身謂之部位, 無專物而命物者也. 部位既定, 于是筋與脈之行于太陽少陰之部者, 命曰太陽之筋太陽之脈, 少陰之筋少陰之脈. …故『靈樞』「經脈」「經筋」兩篇, 并冠以經者, 以筋之與脈, 皆分經而行, 非筋脈之外, 別有所謂經也. 大者爲經, 支者爲絡. 而脈之大者, 各據專部, 故得獨被以經之名, 非以經絡相對, 屹然二物也.”

20)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2. “是故三氣者, 各有其本, 各行其道, 而不可相干, 失常則變矣.”

21)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2. “是故三氣者, 各有其本, 各行其道, 而不可相干, 失常則變矣.”

것은 衛氣를 肌肉을 데우고 水穀을 消化시키는 熱氣로 보기 때문이다.²²⁾

한편 三焦 역시 氣가 유행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周學海는 三陰三陽의 外分野에 대비하여 三焦를 內分野라 말한다.

三焦는 內의 分野이고 三陰三陽은 外의 分野이다. 分野는 衛氣의 공간(部)이고 經은 營氣의 통로이다.²³⁾

그러므로 外分野는 사실상 腠理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腠理가 衛氣의 도로로서 經脈 외부의 分野라면 三焦는 元氣의 도로로서 장부 외부의 分野에 해당한다.²⁴⁾

통용되는 용어는 ‘部位’라는 말을 두고 굳이 分野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 것은 이곳이 혈액이 흐르는 맥관 내부에 비해 ‘열려 있는 공간(野)’으로서 衛氣가 활동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外氣와 內氣의 出入이 일어나는 장소이므로 邪氣가 體內로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하다.

人身의 肌肉筋骨에는 각기 수평으로 수직으로 변은 腠理가 있으니 氣가 升降出入하는 도로이다. 升降은 裏氣와 裏氣가 회전하는 도로이고, 출입은 裏氣가 外氣와 교접하는 도로이다. 裏氣는 身氣이고 外氣는 空氣이다. 코로 한 번 숨을 내쉬면 온몸의 84,000 毛孔이 모두 한 번 벌어지고, 한 번 숨을 들이쉬면 온몸의 84,000 毛孔의 모두 한 번 오므린다. 出入

이 이리하고 升降도 이리하여 한 순간도 쉬지 않는다. 『內經』에서 말하기를 “陽在外, 陰之使也; 陰在內, 陽之守也.”라고 하였으며 또한 “陽者, 衛外而爲固也; 陰者, 藏精而起亟也.”라고 하였으니 이는 出入의 기틀을 말한다. …內로는 臟腑가 있고 外로는 肌肉이 있어 縱橫으로 氣가 왕래하여 어그러지지 않는다.²⁵⁾

3) 分野와 受病

三陰三陽이 經絡을 기준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六氣를 기준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分野를 기준으로 한 것임은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腠理開而中於邪. 中於面, 則下陽明. 中於項, 則下太陽. 中於頰, 則下少陽. 其中於膺背兩脇, 亦中其經. …… 中於陰者, 常從臂胛始, 夫臂與胛, 其陰皮薄, 其肉淖澤, 故俱受於風, 獨傷其陰.”²⁶⁾이라고 하여 일정한 경로를 지적하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邪氣가 사람에게 적중하면 먼저 皮毛分野의 사이에 맞아, 經絡脈管의 속이 바로 병드는 것은 아니다. 脈管 중의 血氣가 盛하지 못하면 邪氣가 脈中으로 滲入된다. 陽經으로 滲入되는 경우가 있고 陰經으로 滲入되는 경우가 있으며, 邪氣가 이미 三陰의 分野에 이르렀으나 아직 脈管으로 滲入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經脈은 氣가 장부와 통하여 그 기전이 매우 빠르므로 邪氣가 經脈으로 들어오면 臟腑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때문에 經病에도 裏證이 있으며, 邪氣가 三陰의 分野에 이르렀으나 脈管으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三陰의 表證으로서 아직 發汗으로 치료할 수 있다.²⁷⁾

藥出版社. 1999. p.232. “衛氣者, 本于命門, 達于三焦, 而溫肌肉筋骨皮膚, 標悍滑疾, 而無所束者也.”

22)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2. “是故衛氣者, 熱氣也. 凡肌肉之所以能溫, 水穀之所以能化者, 衛氣之功用也.”

23)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4. “三焦者, 內之分野也; 三陰三陽者, 外之分野也. 分野者, 衛之部也; 經也者, 營之道也.”

24)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6.

25)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7. “人身肌肉筋骨各有橫直腠理, 爲氣所出入升降之道. 升降者, 裏氣與裏氣相回旋之道也; 出入者, 裏氣與外氣相交接之道也. 裏氣者, 身氣也; 外氣者, 空氣也. 鼻息一呼, 而周身八萬四千毛孔, 皆爲之一張; 一吸, 而周身八萬四千毛孔, 皆爲之一吸. 出入如此, 升降亦然, 無一瞬或停者也. 『內經』曰“陽在外, 陰之使也; 陰在內, 陽之守也. 又曰陽者, 衛外而爲固也; 陰者, 藏精而起亟也. 此出入之機也. …內而臟腑, 外而肌肉, 縱橫往來, 并行不悖.”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36.

27)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7.

‘經絡脈管’과 대비하여 말한 ‘皮毛腠理’는 衛氣 활동의 무대로서 「邪氣藏府病形」에서 말하는 ‘皮膚, 腠理’와 동일하다. 邪氣가 三陰三陽의 分野에 침입하는 경우 分野의 正氣가 壅塞됨으로 脈管 내부 正氣에 영향을 미쳐 人身 전체로 병리적인 현상이 출현한다.

邪氣가 分野에 있다는 것은 皮膚와 分肉의 사이에 있음을 말하는데, 病證이 某經으로 나뉘어 나타나 확연히 각기 境界를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邪氣가 오는 데 있어 반드시 일정한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뒷목으로 맞으면 太陽으로 들어와, 太陽의 分野가 사기에 의해 壅塞되므로 이 分野 중의 正氣가 곤궁해지고 正氣가 곤궁해지면 脈中之 氣의 升降과 서로 보조를 맞출 수 없으므로, 邪氣가 비록 脈中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脈中之 正氣는 이미 응색되어 있기 때문에 온몸의 상하로 유독 ‘太陽證’이 나타나게 된다. 脈中之 正氣가 응색된 지 오래되면 裏氣 역시 虛해지므로 邪氣가 虛를 타고 안으로 침입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邪氣가 分野에 있을 때에는 軀殼(外)에만 있고 邪氣가 經脈으로 들어오면 軀殼이 반드시 臟腑(中)에 미친다.²⁸⁾

그러므로 이른바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은 外邪의 침입으로 인해 몸껍질(軀殼)에 병증이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邪氣가 分野를 벗어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太陽病, 陽明病 등으로 명명할 수 없다. 이는 『傷寒論』에 보이는 “表不解”²⁹⁾, “太陽病不解”³⁰⁾

등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³¹⁾

4. 標本과 六經六氣

周學海가 六經과 六氣를 동일시하는 標本氣化學說을 비판하는 이유는 六氣의 標本과 臟腑經絡의 標本이 지칭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標本은 원래 일정한 뜻이 없다. 六氣의 標本은 氣化의 정상과 변이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고 臟腑經絡의 標本은 人身氣血의 表裏運행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病氣의 標本은 病의 원인과 증상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며 또한 病의 本證과 變證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三者는 서로 일정한 뜻이 있으므로 서로 합쳐서 볼 수 없다. 우연히 맞을 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진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³²⁾

때문에 六氣와 六經을 뒤섞어 인식하는 경우 질병의 실상을 곡해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환자가 厥陰風木의 기에 상하여 少陽相火의 熱病을 앓는 것은 木이 火로 傳化했기 때문으로, 十二經의 少陽厥陰과는 무관하다. 邪氣가 少陽에서 厥陰으로 傳하거나 厥陰에서 少陽으로 나오는 것은 十二經의 表裏로서 六氣의 木火와는 무관하다. 원인이 寒인데 熱證이 보이는 것과 원인이 熱인데 寒證이 보이는 것, 그리고 始終으로 熱證인 경우 始終으로

藥出版社. 1999. p.254. “邪之中人也, 先中于皮毛分野之間, 而經絡脈管之中, 未能即病也. 脈管中血氣不盛, 則邪氣滲入脈中矣. 有滲入陽經者, 有滲入陰經者, 有邪已至于三陰之分野, 而有未滲入脈管者. 經脈之氣通于臟腑, 其機至捷. 邪入經脈, 則其入于臟腑也, 不可御矣. 故陽經亦有裏證, 若邪至三陰分野, 而未入脈管, 是則三陰表證, 猶可汗而愈也.”

28)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4. “獨是邪在分野者, 概于皮膚分野之謂也, 而病證竟分見某經, 劃然各有界畔者, 何謂也? 曰邪之來也, 必有其道. 如中于項, 則下太陽, 太陽分野爲邪所壅, 則此分野中正氣困矣, 正氣困, 則不能與脈中之氣升降遲速相應, 邪雖未入脈中, 而脈中之正氣已爲所累矣, 故周身上下, 皆獨見太陽證也. 累之日久, 則裏氣亦虛, 邪乃乘虛而內侵矣. 總之, 邪在分野, 見證只在軀殼之外, 邪入經脈, 見證必及臟腑之中.”

29) 張機. 仲景全書. 臺北. 集文書國. 1983. p.198. “傷寒脈浮,

發熱無汗, 其表不解者, 不可與白虎湯. 渴欲飲水, 無表證者, 白虎加人參湯主之.”

30) 張機. 仲景全書. 臺北. 集文書國. 1983. p.111. “太陽病三日, 已發汗, 若吐, 若下, 若溫鍼, 仍不解者, 此爲壞病, 桂枝不中與之也. 觀其脈證, 知犯何逆, 隨證治之.”

31)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太陽病 熱入血室’과 같은 용례는 오히려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太陽病이란 말이 붙은 것은 外感病이 太陽의 分野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이지 ‘熱入血室’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太陽病이라는 뜻이 아니다.

32)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94. “標本之義, 本無定指. 六氣之標本, 以氣化之正變言也; 臟腑經絡之標本, 以人身氣血運行之表裏言也; 病氣之標本, 以病之因與證言也, 又以病之本證與變證言也. 三者各有專指, 不可互相牽合. 即有時偶合, 亦不過爲典要者也.”

寒證인 경우는 病氣 자체의 傳變으로서 六氣나 六經의 陰陽과는 무관하다.³³⁾

그렇다면 『內經』에서 말하는 三陰三陽의 標本中氣는 무엇인가?

『內經』에서 말한 標本中氣의 三陰三陽은 六氣의 性情과 그 傳化를 직접 말한 것이다. 六氣의 性情은 각기 陰陽을 가지고 있으며 陰陽이 각기 太少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風은 氣를 기준으로 말한 것으로 이것이 本이다. 風의 性情에는 少陽이 있고 厥陰이 있으니 少陽厥陰은 風의 性情을 가리키는 것으로 少陽은 火이고 厥陰은 風이라고 곧바로 말할 수 없다. 性情이 있으면 傳化하므로 少陽을 따라 陽으로 傳化하는 경우가 있고 厥陰을 따라 陰으로 傳化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방향으로 傳化하는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이를 標로 한다. 中氣는 氣의 운행에 있어 體와 性과 傳化가 있음을 말한다. 體는 本이고 性은 體에 간직되니 소위 中이다. 傳化는 그 標이다. 陰으로 전화하고 양으로 전화하는 것은 원래 일정한象이 없다. 대체적으로 本氣가 陽에 속하는 것은 中氣가 陽으로 전화하고 標가 陰으로 전화한다. 예컨대 木火는 性이 陽에 속하므로 陽을 中氣로 갖으며 標는 陰이 된다. 本氣가 陰에 속하는 것은 中氣가 陰으로 전화하고 標가 陽으로 전화한다. 本에 가까운 것은 中氣로 전화하고 本에서 먼 것은 標로 전화한다. 이 역시 당연한 이치이다.

여기서 말하는 三陰三陽은 六氣의 ‘性情’ 즉 본질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分野의 三陰三陽과 무관하다. 그러므로 이는 六氣의 전화가 기를 본질적인 수준 즉 五臟의 本氣 차원에서 규명하는 원리임을 지적한 것이다. 周學海는 「運氣篇」에 보이는 六氣의 標

本이 氣의 복잡다단한 변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며 다만 변화를 추측케 하는 일반적인 원리 정도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한다.

氣가 전화하는 미묘한 부분에 이르면 標本中氣 이론만으로는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常을 모르고 어떻게 變을 알겠는가? 『內經』에서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할 바가 있어 그를 기준으로 실상을 규명하는 기반을 삼게 하였을 뿐이다.³⁴⁾

그러므로 실제 임상에 있어 六氣의 標本氣化원리가 갖는 의미는 병의 전변을 예측하여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데에 있다.

『內經』에서 거듭 말한 標本은 전적으로 氣化를 가리킨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六氣 전화의 機理를 이해하여 臨證 時에 病氣가 장차 전변하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예방케 한 의미이다.³⁵⁾

辨證을 할 때에는 病氣의 변화와 병의 소재를 각각의 원리에 따라 별도로 분석하여 比類하는 방식으로 질병을 보아야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至眞要大論」에 말하기를 “以名命氣，以合命處，以言其病。”이라고 했다. ‘名’은 四象의 명칭으로서 「陰陽離合論」의 이론 바 三陰三陽의 名을 말한다. ‘氣’는 六氣를 말한다. ‘處’는 人身 十二經脈의 部位를 말한다. 이상을 통해 보건대 天地四方의 象을 기준으로 三陰三陽의 명칭을 일으키고, 因하여 그 명칭에 六氣를 가하고, 인하여 그 명칭에 人身을 가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三陰三陽의 명칭을 빌려 氣(六氣)와 處(分野)가 所屬한 바를 별도로 분석하여

33)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94. “如病者傷于天之厥陰風木之氣，而患少陽相火之熱病，此自六氣傳化之木火也，又十二經之少陽厥陰何與也？病者，邪由少陽內傳厥陰，或由厥陰外及少陽，此自十二經之表裏也，又六氣之木火何與也？至若病因于寒，而見熱證，因于熱，而見寒證，與夫始熱終寒，始寒終熱，又自病氣之傳變也，又六氣六經之陰陽何與也？”

34)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95. “至于氣之傳化不測，豈盡拘此，然不知其常，安知其變，經特明其常例，欲人有所據，以爲講明之地耳。”

35)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94. “經所以重言標本者，是專指氣化，欲人明于六氣傳化之機，庶幾臨治可以逆知病氣將來之傳變，以豫防之。”

유추하는 방식으로 그 병을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불과하다. ‘말한다’ 함은 토론함을 뜻한다.³⁶⁾

III. 結 論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周學海는 標本氣化學說에서 六經과 六氣를 동일시하는 관점을 비판하여 三陰三陽 分野說을 제출하였다.

2. 三陰三陽은 天地의 四象에서 도출된다. 三陰三陽은 六經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軀殼의 表裏前後兩側를 구체화하는 개념이며, 六氣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臟腑 本氣의 剛柔清濁을 표상하는 개념이다. 六經과 六氣는 본래 별 관계가 없으므로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3. 「陰陽離合論」은 三陰三陽의 分野를 설명한 것으로, 太少厥明은 前後表裏의 부호를 의미한다. 太陽은 등의 표면을 말하고 少陽은 등의 이면을 말한다. 陽明은 배의 표면을 말하고 太陰은 배의 이면을 말한다. 少陽은 등과 배 사이의 측면을 말하고 厥陰은 그 이면을 말한다.

4. 分野는 비어있는 공간 즉 통로의 의미로서 구체적으로 衛氣의 도로이다.

5. 六經과 六氣를 동일시할 수 없는 까닭은 六氣의 標本은 氣化의 정상과 변이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고 臟腑經絡의 標本은 人身氣血의 表裏運행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6. 六氣의 標本氣化원리가 현실적으로 갖는 의미는 병의 전변을 예측하여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데에 있다.

7. 辨證을 할 때에는 病氣의 변화(氣化)와 병의 소재(六經)를 각각의 원리에 따라 별도로 분석하여 비

類하는 방식으로 질병을 보아야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8. 分野說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部位說이건 氣化說이건 지나치게 외연이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三陰三陽 본연의 뜻을 왜곡했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部位說에 대한 비판으로서 分野說은 三陰三陽의 部位를 軀殼에 한정할 것을 요구하며, 氣化說에 대한 비판으로서 分野說은 三陰三陽의 본뜻이 軀殼을 表裏前後로 나누는 개념이지 臟腑 本氣의 氣化를 추구하는 개념이 아님을 지적한다.

參考文獻

<논문>

1. 김만산. 易學上 용어의 개념정의에 관한 연구 (1). 동양철학연구. 1997. 제17집. pp.250-254.
2. 박찬국. 陰陽과 五行의 관계(1).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8. 1994. p.24.
3. 임진석.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闔樞. 대한원전조사학회지. 1998. 11(2). pp.19-20.
4. 장우창. 柯琴의 醫學理論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2. pp.194-198.

<단행본>

1. 鄧良月 主編. 中國鍼灸經絡通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4. pp.180-181.
2. 은석민. 傷寒溫病學史略. 대전. 주민. 2007. pp.160-161.
3. 張機. 仲景全書. 臺北. 集文書園. 1983. p.111, 198.
4.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7, 208, 232, 234, 237, 254, 255, 594, 595.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0, 229, 257, pp.36-37.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3, 36.

36)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4. “「至真要論」曰, 以名命氣, 以合命處, 以言其病. 名謂四象之名, 則「陰陽離合論」所稱三陰三陽之名也. 氣, 風寒暑濕燥火之六氣也. 處, 人身十二經絡之部位也. 由此觀之, 以天地四象之象, 起三陰三陽之名, 因卽以其名加之六氣, 因卽以其名加之人身, 此不過借以分析氣與處各有所屬, 俾得依類以言其病耳. 言者討論之謂也.”